

선배가 키운다 'KIA의 미래' 황대인



지난해 김선빈의 제주캠프·올 겨울엔 최형우 전주캠프에 참가
"스프링캠프 앞두고 많이 배우자는 마음" ... 구단에서도 기대감

선배들이 그라운드 안팎에서 KIA 타이거즈의 미래 황대인을 키운다.

황대인은 지난해 주축 선수들의 부상으로부터 기회를 얻었고, 프로 입단 후 7시즌 만에 처음으로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했다.

팀 홈런 가뭄에도 황대인은 13개의 홈런을 기록하면서 막강이상으로 고전한 최형우를 추격해 팀 내 홈런 1위에 올랐다.

황대인은 "시즌 시작하기 전에 안 아프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한 번도 안 아팠다"면서도 "전반기 때 잘 못한 게 아쉬웠다. 전반기 때는 누가 아파서 배우는 식으로 들어가면서 많이 못나갔다. 이후 경기를 많이 나가니까 부담감도 덜고 경기력도 많이 올라왔다"고 지난 시즌을 평가했다.

마무리캠프 때 수비에 공을 들였던 황대인은 1월에는 타격에 신경 쓰고 있다.

황대인은 "1루를 쉽게 생각했는데 많이 힘들다. 캠프하면서 코치님하고 이야기 많이 하면서 수비 연습을 했다"며 "실수가 많았다. 1, 2루 간에 타구가 나가는 데 내 볼이 아닌데 나가기도 했다. 보이지 않은 실책이니까 그런 것을 줄여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스프링캠프를 앞두고는 타격을 기다리고 있다.

황대인은 "타격할 때 몸이 전체적으로 열려서 타구에 힘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시즌 때는 쉽지 않으니깐 비 시즌 때 바꿔보라고 했고, 그 부분 신경 써서 연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조건 잘해야 한다"며 공·수에서 칼을 갈고 있는 황대인 뒤에는 든든한 선배들이 있다. 김선빈과 최형우가 황대인의 선배이자 코치다.

1루 자리에서 시즌을 보낸 황대인은 2루수 김선빈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황대인은 "시합할 때 선빈이 형이 옆에서 워낙 잘해준다. 말도 많이 해주는데 '밖에 봤을 때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선빈이 형이 진짜 시합 중에는 진짜 열심히 한다(웃음). 풀 플레이도 잘해주고 그래서 더 편하게 했다. 장난도 많이 치고 재미있게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에는 김선빈이 주도한 '제주캠프' 일원이었다. 이번 겨울엔 전주에서 진행되는 '최형우 캠프'에 참가하고 있다.

황대인은 "마무리캠프 때 (최)형우 선배가 몸 잘 만들었다. 옆에 와서 계속 재촉하는 모습이 코치 같았다. 재미있었다"며 "많이 배우자는 마음으로 하고 있다. 옆에서 보니까 정말 열심히 한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줄 몰라서 깜짝 놀랐다(웃음). 좋은 말도 많이 듣고 비시즌 어떻게 준비 해야 되는지도 많이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또 "어떻게 하면 밀어붙여도 밀리 보낼 수 있나 이런 것도 물어보고, 선배가 치는 것도 많이 본다. 선배가 '작년에 어떤 게 문제였다. 한 번 고쳐보자'고 해서 고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단도 기대감으로 황대인의 올 시즌을 주목하고 있다. 19일 예정된 나성범 입단식에서 축하 꽃다발을 전달할 타자 대표 선수로 황대인을 선택했다.

황대인은 김선빈과 최형우에 이어 나성범이라는 배움을 얻을 수 있는 선배를 얻었다. 황대인이 나성범과 함께 중심타선에서 역할을 해주는 게 KIA가 그리는 최고의 시나리오.

황대인은 "지난해에 운이 따라서 그렇지 잘한 것은 아니었다. 이제는 잘 해야 한다. 말보다는 실력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우선은 팀 성적이다. 무조건 팀 성적이다. 올해 한번 해보려고 한다. 형우 형도 올해는 우리 팀이 잘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나성범 KIA 입단식 19일 챔피언스필드

KIA 타이거즈가 19일 챔피언스필드에서 나성범의 입단식을 연다.

입단식에는 KIA 장정석 단장이 참석해 나성범에게 유니폼을 입혀줄 예정이다.

김종국 감독과 황대인·장현식도 선수단 대표로 참석해 축하 꽃다발을 전달한다.

입단식이 끝난 뒤 나성범의 기자회견이 열린다. 공식 행사가 모두 마무리된 뒤 챔피언스필드 그라운드에서 포토타임도 진행된다.

한편 KIA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방역 수칙을 준수해 입단식을 진행할 방침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레바논행 티켓을 잡아라"

벤투호 호랑이해 첫 경기
내일 밤 아이슬란드와 평가전
레바논과 월드컵 예선 대비



벤투 감독

한국 축구의 상징 호랑이의 해를 맞아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새해 첫 경기에 나선다.

파울루 벤투(53·포르투갈)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한국시간으로 15일 밤 8시 터키 안탈리아의 마르단 스타디움에서 유럽의 북빙 아이슬란드와 친선 경기를 벌인다. 축구 대표팀은 9일 소집돼 터키 안탈리아로 출국, 전지 훈련을 진행 중이다.

15일 아이슬란드, 21일 폴란드와 친선 경기를 치른 뒤 25일 레바논으로 이동한다.

이번 두 차례 친선 경기는 27일 레바논, 2월 1일 시리아를 차례로 상대하는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예선 7~8차전에 대비한 평가전 성격이다.

특히 이번 터키 전지 훈련에는 골키퍼 김승규(가시와 레이슬)를 제외한 25명이 K리그 선수들로 구성된 벤투 감독의 눈도장을 받으려는 내부 경쟁이 치열하다.

레바논과 월드컵 최종예선 7차전부터 유럽과 선수들이 합류하는 상황에서 벤투 감독의 눈에 들지 못한 일부 K리그 선수들은 레바논행이 아닌 귀국 행 비행기에 올라야 한다.

이 때문에 이번 두 차례 평가전은 말 그대로 '누가 레바논행 비행기에 타느냐'를 정하는 일전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벤투 감독도 이번 소집을 앞두고 "이번 터키 전지훈련과 평가전은 선수들의 면면을 자세히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새로 뽑힌 선수들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대표팀 전술에 어떻게 녹아드는지 관찰하겠다"고 말했다.

손흥민(토트넘)과 황희찬(울버햄프턴)이 부상

증으로 이번 레바논, 시리아행 합류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파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대표팀 소집마다 해외파가 10명 안팎 정도 선발된 만큼 이번에도 그 정도 수의 선수들이 귀국행 비행기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평가전 첫 상대인 아이슬란드는 FIFA 랭킹 62위로 33위인 한국보다 낮은 팀이다.

그러나 2016년 유럽선수권대회 8강에 올랐고,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때도 본선에 진출하는 등 만만치 않은 기량을 가진 팀이다.

특히 2016년 유럽선수권 때는 조별리그에서 포르투갈과 비기고, 16강에서는 잉글랜드를 꺾으며 돌풍을 일으켰다.

인구 37만 명에 불과한 아이슬란드는 역대 월드컵 본선에 나간 국가 가운데 최소 인구 기록을 갖고 있다.

한국과 아이슬란드는 이번이 첫 맞대결이다. 우리 대표팀은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 A조에서 4승 2무로 조 2위를 달리고 있다.

이번 레바논, 시리아와 원정 2연전을 다 이기면 남은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월드컵 본선행을 확정하고, 27일 레바논을 꺾고 같은 날 조 3위인 아랍에미리트(UAE)가 시리아와 비기거나 패하면 곧바로 월드컵 본선 티켓을 획득한다. /연합뉴스



13일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잉글랜드 프로축구 카라바오컵(리그컵) 토트넘 홋스퍼 대 첼시의 준결승 2차전에서 첼시의 안토니오 루디거(가운데·29)가 팀의 첫 번째 골이자 결승 골을 넣은 뒤 동료들과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 빠지니 '속수무책'

손흥민 결장 토트넘, 첼시에 겨
카라바오컵 결승 진출 실패

손흥민(30)이 부상으로 결장한 토트넘 홋스퍼가 잉글랜드 프로축구 카라바오컵(리그컵)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토트넘은 13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첼시와 2021-2022 리그컵 준결승 2차전 홈 경기에서 0-1로 패했다.

6일 1차전에서 0-2로 졌던 토트넘은 1, 2차전 합계 0-3으로 완패했다.

지난 시즌 리그컵 준우승을 차지한 토트넘은 이번 시즌 역시 준결승 문턱을 넘지 못하고 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2018-2019시즌 준우승팀인 첼시가 3년 만에 결승에 진출해 리버풀-아스널 4강전 승자와 우승컵을 놓고 다툰다.

첼시는 이 대회에서 5차례 우승한 경험이 있으며 가장 최근에 우승한 건 토트넘을 결승에서 꺾은 2014-2015시즌이었다.

토트넘은 첼시와 1차전 이후 다리 근육 통증을 호소한 손흥민이 경기에서 나서지 못한 가운데 루카 모라와 헤리 케인을 중심으로 공격을 시도했

나, 결실을 보지 못했다. 첼시는 전반 18분 만에 선제골로 주도권을 잡았다.

메이슨 마운트의 코너킥을 토트넘 골키퍼 피에르루이 골리니가 걷어내려다 실패했고, 안토니오 루디거가 이를 헤딩으로 연결해 골망을 흔들었다.

5분 뒤에는 켈럼 허드슨-오도이가 날카로운 오른발 슈팅으로 추가 골까지 노렸는데, 이번에는 골리니에게 막혔다.

1차전에서 전반 슈팅 0개로 부진했던 토트넘은 2차전에선 기회를 잡기 위해 분투했다.

하지만 전반 32분 피에르-에밀 호이비에르가 페널티 아크 왼쪽에서 찬 슈팅 골대를 살짝 빗나갔고, 이어진 코너킥 상황에서는 문전에 있던 케인이 간발의 차로 공을 놓쳐 마무리 짓지 못했다.

후반 11분 세도하던 모라가 첼시 골키퍼 케파 아리사발라에게 걸려 넘어져 얻은 페널티킥이 VAR을 거쳐 취소됐다.

4분 뒤 에메르송 로얄의 헤딩 슈트는 아리사발라가의 선방에 막혔고, 후반 18분 케인이 페널티 지역 오른쪽에서 차 넣어 마침내 골맛을 보는 듯했으나 VAR 결과 오프사이드가 확인돼 득점이 무산됐다.

/연합뉴스

광주 AI페퍼스, 새해 맞이 팬서비스

오늘 페퍼스타디움
KIA 박찬호·한승택 시구

광주 페퍼저축은행 여자배구단 AI페퍼스가 새해를 맞아 다채로운 팬서비스를 마련했다.

AI페퍼스는 14일 오후 7시 홈구장인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도드람 2021-2022 V리그 경기에서 현대건설과 맞붙는다.

이날 경기에 앞서 KIA타이거즈 박찬호, 한승택이 시구 행사에 참여, 2022년 호랑이해를 맞아 '호랑이 기운'을 팬들에게 전해 줄 예정이다.

경기 당일 입장객에게는 박찬호·한승택의 사인볼(야구공) 24개를 경품으로 증정한다.

박찬호·한승택은 경기 시작 1시간 30분 전인 오후 5시 30분께부터 약 30분간 AI페퍼스 이은지로 부터 배구 서비스를 교육받을 예정이다.

AI페퍼스는 1월 한 달 동안 신년맞이 '패밀리데이 이벤트' 행사로 입장권 할인 행사도 진행한다.

1월 동안 열리는 AI페퍼스 홈 경기 입장권 2장을 구입하면, 1장을 무료로 얻을 수 있다. 해당되는 경기는 14일 현대건설전과 18일 기업은행전, 31일 현대건설전 등 3경기다. 입장권은 코보티켓(www.vticket.co.kr)에서 구입할 수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14일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리는 AI페퍼스와 현대건설의 V리그 경기에서 시구를 맡은 KIA타이거즈 박찬호(왼쪽)와 한승택. <AI페퍼스 제공>